

이슈 초점 운영비 줄다리기... 완공후 7개월 방치 국립광주과학관

정부-광주시 기싸움 그만 여름방학전 개관 서둘러야

매월 관리비만 7000만원
대구·부산은 정부안 수용



5일 광주시 북구 오봉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들어선 호남 유일의 국립광주과학관.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정부가 '운영비 분담'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호남 유일의 국립광주과학관이 완공 이후 7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타협점을 찾아 개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정부의 압박으로 대구시(국립대구과학관)가 최근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한데다 매월 수천만원의 세금이 광주과학관 유지비용에 빠져나가는 등 광주시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여서 정부와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조기에 문을 여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오봉동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9만 8248㎡부지에 848억원을 들여 56개 주제 150여개의 최첨단 과학전시물이 배치된 국립광주과학관이 지난해 11월 준공 후 개관하지 못하고 있다.

연간 45억원으로 추정되는 인건비와 공과금 등 순수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 지를 놓고 광주시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관이 늦어지면서 매월 유지비로 7000여

만원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

광주시는 국립 시설인 점을 들어 전역 국비를 요구한 반면 정부는 지난 2008년 협약 내용에 따라 운영비의 40%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2008년 과학관 건립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과학관 건립 사업비의 분담은 명시했지만 운영비는 '분담하되 추후 협의한다'는 내용만 적시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특히 100% 국비로 운영되는 과천과 대전국립과학관의 형평성도 제기하고 있다. 광주와 함께 과학관을 건립한 대구도 최근까지 광주와 공동으로 이 같은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대구는 올해 초 정부안을 그대로 받아들여기로 최종 합의, 오는 7월 개관한다. 국립부산과학관도

정부안에 동의한 상태다.

광주시의 주장이 분명 설득력은 있지만 비슷한 조건의 타 자치단체가 예산권 등을 쥐고 있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면서 정부와의 관계에서 '을'인 광주시의 입지도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광주시가 끝까지 맞설 경우 국책사업 유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특히 과학관 오픈만 손꼽아 기다려온 지역 과학 꿈나무들의 개관 요구도 시로서는 부담이다.

시 관계자는 "개관일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데는 시나 정부가 공감하는 부분이다"면서 "합의점을 찾아 올 여름방학 시작 전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부품 성적서 위조 새한티이피, 한빛원전 4기도 검증

전국 10기 용역 수행

원전 부품 성적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민간검증업체 새한티이피가 한빛(영광)원전 1·2·5·6기 등 최소 국내 원전 10기의 검증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 김근섭 사장에

대한 상임위 질의를 통해 "문제가 된 2008년 시험성적서 위조 후에도 새한티이피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수행한 23개의 사업실적을 올렸다"며 "이후 수행한 각종 원전 부품 품질 검증작업에서도 위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추궁했다.

<2면에 계속>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광=조익상기자 ischo@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K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잊지말자! 이들의 희생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광주시 남구 광주공원 내 '우리 위한 영의탑'(현충탑) 앞에서 열린 '호국 영령 추모제 및 위패합동 봉안식'에서 고(故) 서정우 하사의 어머니 김오복(53)씨가 분향하고 있다. 서 하사는 지난 2009년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던 이듬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송정역복합환승센터 내년 착공

광주시, 우선협상 대상자 '송정라떼팡스' 확정

KT 등 5개기업 2500억 투자

호남고속철도(KTX) 개통과 함께 '호남권 교통·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될 '송정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광주시 흥진태 투자금융국장은 "광주시가 KT·서희건설·금호터미널·신한은행·교보증권 등 5개 기업 컨소시엄인 '송정라떼팡스'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정라떼팡스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까지 36개월간 총 사업비 2500억원을 투자해 부지 2만 2004㎡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환승터미널을 비롯한 주차장, 비즈니스호텔(150실), 영화관, 상업·유통(대형마트) 판매시설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착공에 맞춰 공사비 534억원 규모의 송정역사 건립에 나선다.

송정역복합환승센터는 KTX와 도

시철도,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과 직접 연계하고, 주변에 의료(병원), 호텔, 도심형 테마파크, 쇼핑, 문화 공간 등을 배치해 교통·물류·관광·문화를 연결하는 '호남권 랜드마크'로 집중 육성된다.

시는 1단계 사업이 완료되고 호남고속철도가 개통되면 2단계 개발사업으로 송정역복합환승센터 주변에 민자유치 등을 통해 의료시설과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5일 "최근 마감된 사업참가 의향서 접수 등에서 '송정라떼팡스' 외에 사업참가 의사를 밝힌 업체가 없는 만큼 사실상 우선 대상 협상자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오는 18일 최종 제안서가 접수되면 15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협약체결 및 해지 등에 결정사유가 없으면 '송정라떼팡스'를 송정역복합환승센터 1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알림

제40회 光日보훈대상 영광의 수상자들

12일(수) 오후 3시 시상식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서

광주일보사는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제40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을 12일 오후 3시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갖습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는 이번 행사가 깊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자
김강수씨(상이군경 부문·72·광주 동구 황금동)
이기순씨(중상이배우자 부문·73·광주 동구 계림동)
박순덕씨(미망인 부문·82·광주 남구 백운동)
홍기범씨(유족 부문·74·광주 남구 주월동)
송효석씨(특별 부문·85·광주 남구 월산동)

김강수씨 이기순씨
박순덕씨 홍기범씨
송효석씨

주최: 光州日報社 후원: 광주지방보훈청

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

모든 여자들이 갖고 싶어하는, 타고난 것처럼 빛나는 피부-피부 속부터 밝히면 가질 수 있어요

피부와 동화되는 Cell-Bio™ 포뮬라가 조명인자를 폭발적으로 케어하는 헤라 화이트 프로그램 바이오제닉 이펙터-타고난 듯 눈부신 조명피부, 이제 당신 거예요

*Cell-Bio™ 피부 동화 포뮬라
피부와 동화되어 보다 폭발적인 효과를 인식하는 헤라만의 앞선 피부과학입니다

NEW
이 백기 동성
주름개선기능성
성분의 함유량 향상

HERA
WHITE PROGRAM
BIOGENIC EFFECTOR
WHITENING REVITALIZING RADIANCE

*유효성능시험이나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객상담실: 080-023-5454(수신자료구분) www.hera.co.kr